

투데이 칼럼

전북의 자존심과 내일의 희망이 담긴 새만금공항 건설

전북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이 같이 존재하는 새만금공항 이 대로 멈추게 되나?

우리지역의 낙후됨을 고착화 시키려 한다는 것이 껏벌과 철새 탓일까? 어찌 다 이렇게 되었을까?

오래전부터 낙후의 길을 걷는 전북자 처도, 특정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까마 득한 옛날의 경제 활성화 시절이 존재 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먼 옛날의 기 역으로 남고, 지금은 낙후된 현실만이 존재한다.

전북의 현실의 정치에서 이제야 조금 씩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지역발전이라 는 큰 틀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찾기 힘 들고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 던 여러 사업조차도 전 정권의 무지비 한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예산삭감이라 는 큰 시련을 겪었다.

그저 작은 사업을 추진에 대한 반대는 군산 전북대병원의 사례로 남게 됐으며 군산시민의 건강은 독미나라라는 풀에 밀린 채 몇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 풀로 남게 되었으며, 이제서야 무지 이 전 후 공사 착공을 보게 됐고 이 또한 많은 시간의 흐름속에 지금 이순간에도 군산시민은 건강을 말갈만한 곳을 찾아 전북지역 또는 수도권의 상급병원 으로 아픈 몸을 말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날 게 되었다.

과연 그렇다면 지역정치권이나 시장 을 책임지는 자들을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 하며 비전을 만들어 가야하는데도 지금 도 변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함은 오늘날도 미래를 놓치는 결과물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 설이라 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간 의 불 균형한 발전과 전북이라는 낙후된 곳을



김 만 호
지방부 군산주재

하나의 희망에 불씨로 분명 우리에게 다가 왔으나, 그를 위한 도민의 마음은 과연 일치했는지 또한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또다시 새만금 국 제공항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독미 나라의 망령이 또다시 되살아나 한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이를 포기 해야 하는 길목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선택은 전북의 도민과 지역 정가의 몫 이고 이 선택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 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반대를 면하지하고 타협을 그 후 로 일삼는 자들이 존재 하며 그를 방치 하고 이를 설득과 타협으로 이끌어 낼 인제는 전북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아쉬 움이 가득하다.

전북의 미래가 껏벌이라는 정말 어찌 구니 없는 이유로 하고 이제는 가까운 제주항공 여객기 환사를 광계삼아 철새 로 인한 비행안전을 광계를 이유로 삼 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군산공 항 의 안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많은 비행 횡수로 국가안보를 책임 지고 비행하는 군산공항 주둔 미공군과 우리 공군이 그렇다면 철새와 껏벌로 비행을 멈추어야 하는가?

또한 터무니 없는 이유와 공평한 광계 로 이제는 군산 미공군의 활주로 확장 에 불과 하며 우리나라 자체의 관제권

이 존재하지 않고 미공군 의 관제권 아래에 있을 거라는 그래서 반대한다는 이들의 논리에 도민과 시민 모두 생각 을 이야기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이다.

단체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어설 폰 논리에 반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 다.

또한 이들의 광계로 수라껏벌을 이야 기하는데 군산 수라껏벌은 이미 사라지 고 없다. 이자리에 새만금 방조제가 조 성되면서 이곳에 바닷물은 더 이상 존 재하지 않으며 이곳은 이미 개발로 인 한 껏벌로서의 가치도 상실하고 이곳을 생계 수단으로 하던 많은분들의 한결같 은 목소리는 더 이상의 껏벌은 없더라 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도 이 를 이유로 반대한다면 과연 전북의 밝 은 미래는 또 다른

독미나라 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도민 모두가 참여 하는 공청회 역시 이들의 난동으로 인해 몇 차례 무산시키며 까지 지역정서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 는 누굴 위한 목소리이며 이는 도민 모두 의 바람이며 뜻 일텐데 왜 이들은 이를 무조건 적인 반대일까?

단순히 수라껏벌을 위한다는 목소리 는 터무니 없으며, 오늘날 하는 어느곳 이든 날아다니는 철새를 상대로 하는

공항안전성의 문제라면 이는 극복하고 더욱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공항을 건 설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인천국제공항 도 존재하지 않은가? 인천국제공항 역 시 새들의 이동경로 에 있으며 이곳 역 시 섬에 지어진 공항인것이다.

언제까지 반대단체의 억지 논리에 휘둘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끝을 모르는 이들의 논리에 오늘날도 도민은 가팔 을 끌고 무안과 인천을 그리고 청주를 오가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방행정에 바란다.

정치권 과 지방 선출직 모두는 선출시 를 뒤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다시 시간을 되돌려 독미나라 와 바꾼 시민의 건강과 안녕 은 지금도 망령이 되어 모든 도민의 뇌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독미나라 로 인한 군산시민의 건강을 담보 삼았던 이들의 주장은 한번으로 끝났을렸으면 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던 그대 행정력을 기억해 전북자치 도민의 바람을 회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근 법원의 판결 역시 도민 모두의 마음에 상심감만 안겨주는 결과를 주었 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례진 발상을 스스로 견여차 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군산시는 적극적인 노력과 하나의 마 음일 때 기회는 찾아 올것이라 생각하 며 한마음으로 이들의 무리하고 여처구 니없는 소모적인 시간 끌기식 논쟁에서 벗어나

면 훗날 미래 우리의 후손이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할 것이다.

족의 생계를 위협하는것입니다.

내것이 소중한것처럼 남의 것을 존 중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태 도가 건강한 청소년의 첫걸음입니다. 강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무 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범죄예방진단을 지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편리함은 지켜질 때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길계를 위해 청소년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준김계경황서신홍지무대

사설

어느 승려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

조계종을 두루 지낸 어느 승려의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과 비지금 조성 의혹 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해당 사찰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 섰다.

군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가지 고 나오더니, 승합차에 실었다. 승려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 당국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 기된 지 석 달 만에 강제 수사 가 이뤄졌다. 수사 당국은 사 찰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 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찰 전체가 아니라 주지살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 려졌다. 앞서 승려가 건설업체 를 실소유하며 조성한 비지금 으로 사찰 관련 공사를 따내기

위한 대가성 돈가방을 사찰 주 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 기된 바 있다.

취재 결과, 주지는 승려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 다. 주지는 “돈을 받았지만 물 러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 당 승려 역시 “돈을 썼지만 물 러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간 “중현-종법 위반이 확인 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던 조계 종은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입 장문을 내고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종교단압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교계 시민단체인 참여 불교재가연대 교단자성센터는 “해당 사안은 중대한 권력형 부패이고 종단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시간 을 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해서는 성역이 존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과 없는 앤팀

케이팝(K-POP)의 세계화 속 에서 역사 인식 논란은 되풀이 되고 있다. ‘하이트 글로벌 그 룹’ 앤팀(&TEAM)이 한국 데 뷔와 동시에 음악방송 3관왕을 차지했다.

최근 KBS ‘뮤직뱅크’에서 미 니 1집 타이틀곡 ‘백 투 라이 프’(Back to Life)로 1위를 거머 쥐며 SBS M ‘너쇼’, MBC M, MBC every1 ‘쇼! 챔피언’에 이 어 트로피를 연달아 들어 올렸 다.

하지만 데뷔의 성과만큼이나 풀지 못한 과제도 남았다. 그 룹의 만형 케이는 데뷔 초 라 이브 방송 중 팬들에 대한 마 음이 깊다는 멤버의 말에 “일 본해봐?”라는 질문을 했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서 일본의 주장만 반 영된 채 표준화된 데서 비롯됐 다.

당시 한국은 식민 지배를 받 고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 었다.

이후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에서도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가 유지됐다. 한국은 1992년 유엔 지명표준 화회의에서 처음으로 ‘동해(East Sea)’ 병기를 공식 요구 했다.

2012년 그룹 카라는 미니 5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예민 한 한일 관계 문제로 음악 관 련 질문만 받겠다고 공지했으 나 현장에서 “독도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 오자 MC가 이를 막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 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교유 의 영토다.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다. 케이팝 아티스트라면 기본 적인 역사·문화 인식과 발언 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 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청소년 여러분 무인점포에서의 일탈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몇년간 김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인 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 를 절약해서 소비자에게 잔값에 판매 하는 이러한 방식은 업주와 고객에게 장점이 많지만, 인타깝게도 이를 악용 한 절도·재물손괴와 같은 범죄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무인점포는 심야시간에도 무인 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 겠지”라는 가벼운 생각과 또래 무리에

서의 잘못된 영웅 심리로 범죄에 연루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무인점포는 단지 직원이 없을 뿐 고 해상도 CCTV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 으며 마스크를 쓰는 등 얼굴을 가리고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빠르게 동 선을 추적하여 높은 걸거울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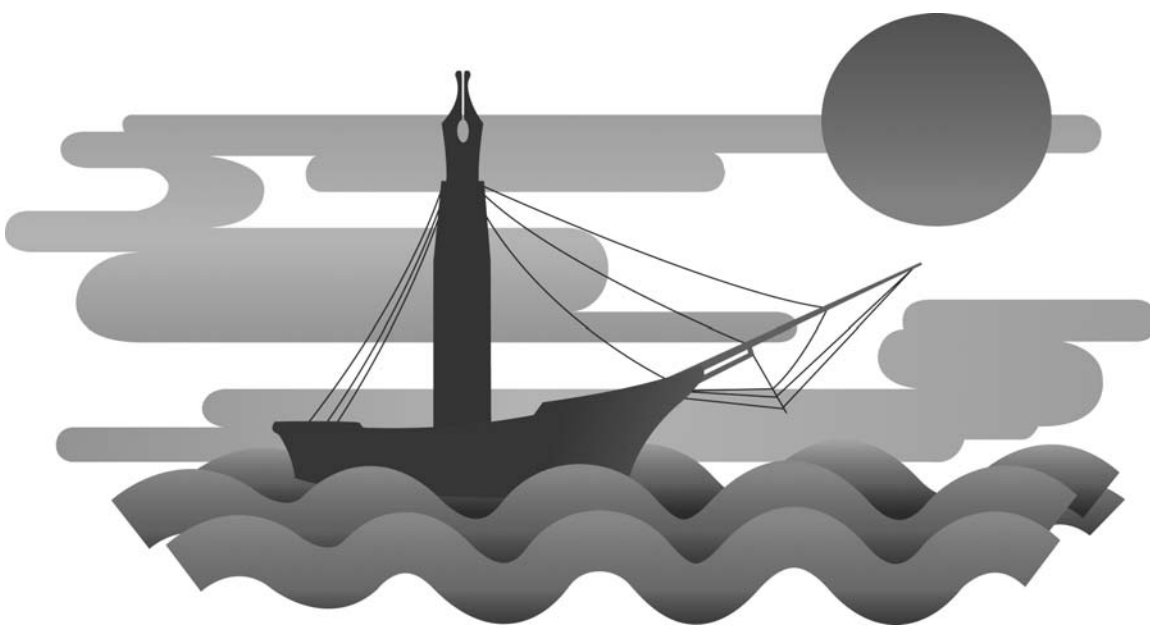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청소년 여러분! 절제를 하지 않고 재품을 훔쳐가거나 절제함을 뜯어 둔 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나 재물손 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번쯤은 관촬했지”라는 생각은 형 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장래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 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가벼운 판단에서 시작됩니 다. 하지만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은 무 겨우며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부 모님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무인점포는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 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의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일탈은 점포 운영자 가

족의 생계를 위협하는것입니다. 내것이 소중한것처럼 남의 것을 존 중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태 도가 건강한 청소년의 첫걸음입니다. 강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무 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범죄예방진단을 지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편리함은 지켜질 때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길계를 위해 청소년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준김계경황서신홍지무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